

KIA, 2승 안고 잠실로...플레이오프까지 '1승'

준PO 2차전 6-3 승리...1회 5득점으로 승기 잡아
올려 6이닝 2실점·전상현 세이브...1승 추가 시 PO



KIA타이거즈가 LG트윈스를 상대로 준플레이오프 2연승을 거두며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뒀다.

▶관련기사 10·16면
KIA는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 포스트시즌 LG트윈스와의 준플레이오프(5전 3선승제) 2차전에서 6-3으로 승리했다.

전날 1차전에서 5-1로 승리한 KIA는 이날도 LG를 제압하며 홈에서 열린 1·2차전을 모두 쓸어 담았다. 시리즈 전적 2승을 거둔 KIA는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뒀다. KIA는 19일 이동일을 거쳐 20일 잠실구장에서 LG와 준플레이오프 3차전을 치른다. 21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4차전이 예정돼 있으며,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광주로 돌아와 최종 5차전을 치른다.

역대 5전 3선승제 준플레이오프에서 1·2차전을 모두 승리한 팀은 9차례 중 7차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KIA 역시 77.8%의 확률을 등에 업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선발투수로는 아담 올라가 나섰다. 올라는 총 94개의 공을 던지며 6이닝 6피안타 1사구구 8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

해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 초반부터 KIA 타선이 폭발했다. 1회초 올라가 LG 타선을 삼자범퇴로 처리하자 KIA는 곧바로 대량 득점으로 화답했다. 1회말 1사에서 박재현이 좌전 안타로 출루한 뒤 김도영이 볼넷을 골라내며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이어 카스트로가 우익수 오른쪽으로 향하는 적시타를 터뜨리며 선취점을 뽑았다. 기세를 올린 KIA는 나성범의 적시 2루타로 한 점을 더 보탤 뻔했다. 1사에서 박재현이 좌전 안타로 출루한 뒤 김도영이 볼넷을 골라내며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이어 카스트로가 우익수 오른쪽으로 향하는 적시타를 터뜨리며 선취점을 뽑았다. 기세를 올린 KIA는 나성범의 적시 2루타로 한 점을 더 보탤 뻔했다. 1사에서 박재현이 좌전 안타로 출루한 뒤 김도영이 볼넷을 골라내며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이어 카스트로가 우익수 오른쪽으로 향하는 적시타를 터뜨리며 선취점을 뽑았다. 기세를 올린 KIA는 나성범의 적시 2루타로 한 점을 더 보탤 뻔했다.

둔둔한 득점 지원을 받은 올라도 안정적 인 투구를 이어갔다. 2회초 문정빈과 이재원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친 올라는 3회초 첫 실점을 허용했다. 1사에서 박동원에게 2루타를 맞은 뒤 구본혁에게 적시타를 내주며 5-1이 됐다. 이어 5회초 1사에서 오지환에게 우중간 안타를 허용한 뒤 박동원을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구본혁의 안타에 이어 박해민에게 적시타를 맞으면서 점수 차는 5-2로



18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6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1차전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승리한 KIA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좁혀졌다.

그럼에도 올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6회초 볼넷 1개만을 허용하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고, 3점 차 리드를 지킨 채 마운드를 내려왔다.

KIA는 7회초 볼펜을 가동했다. 박도규가 오지환에게 볼넷을 허용하자 곧바로 성영탁을 투입했다. 성영탁은 박동원에게 병

살타를 유도한 뒤 구본혁까지 직선타로 처리하며 위기를 넘겼다.

KIA는 7회말 귀중한 추가점을 뽑았다. 선두타자 박재현이 좌익수 왼쪽으로 향하는 2루타를 터뜨리며 포문을 열었다. 김도영의 뜬공 이후 카스트로가 자동 고의4구로 출루했고, 나성범이 좌익수 방면 희생플라이를 기록하며 박재현을 홈으로 불러

들었다. 점수는 6-2로 벌어졌다.

8회초 마운드에 오른 조상우가 박해민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한 뒤 2사에서 문정빈에게 적시타를 맞아 한 점을 내줬다. 이어 문보경에게도 안타를 허용하며 위기가 계속되자 KIA는 전상현을 투입했다.

전상현은 이재원을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9회초 오지환 삼진, 박동원 뜬공, 구본

혁 삼진으로 처리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상현은 1.1이닝 동안 안타 없이 삼진 3개를 잡아내며 무실점 세이브를 기록했다. 경기 막판 LG의 추격을 잠재운 공로를 인정받아 데일리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엠코 3조원대 광주공장 증설...오늘 착공식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후공정 라인, 2031년까지
1500명 신규 고용 창출...반도체 생산 '지역완결'

세계적 반도체 후공정기업인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3조원대 광주공장 증설을 본격화한다.

엠코의 이번 증설 투자는 오는 2030년 첫 양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 건설과도 맞물려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례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서 발돋움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8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에 따르면 엠코는 19일 오전 기존 광주공장(K4) 부지 내에 첨단반도체 후공정 생산라인 증설 공사 착공식을 연다. 당초 투자 예정이던 1조90억원보다 3배 늘어난 총 3조원대를 투자해 생산시설 4개동을 짓는다.

엠코는 기존 광주공장 부지 내에 2031년까지 신규 라인을 생산능력 확대 단계인 'PHASE' (페이즈)에 따라 순차

증설한다. 총 3단계로 페이즈 1·2는 건물 1개동씩 지으며, 페이즈3는 2개동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신규 고용 창출 효과는 15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후공정은 팹에서 생산한 반도체 웨이퍼에서 개별 칩을 분리한 뒤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보호하는 작업이다. 완제품 검사·출하 과정을 통칭하며 흔히 반도체 패키징·테스트로 불리기도 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목표대로 2030년대 초반까지 팹 4기 이상이 들어 서면 엠코의 후공정 라인까지 맞물려 반도체 생산의 전공정을 전남광주에서 완

결적으로 할 수 있다.

엠코의 증설 투자에는 행정통합 효과가 발휘됐다. 당초 엠코는 1조원 규모 증설을 계획했으나, 기존 광주 제1하수처리장의 용량 포화 문제로 늘어난 폐수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엠코는 지난달 16일 시에 지원을 요청했고, 시는 기존 시설의 여유 용량 확보와 처리물량 분산 등을 검토한 끝에 장성군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 장성군과 협의를 거쳐 이튿날 장성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연계 활용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히 장성폐수처리 시설 이용 용량이 넉넉하다는 점을 확인한 엠코는 증설 투자 규모를 총 3조원까지 늘렸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부마항쟁과 5·18 ‘헌법 전문’에 답아야”

이 대통령, 국회 논의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부마 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

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

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고한 정신을 역사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다짐했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남일보 청년창업지원 캠페인

청년창업 미래를 열다

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미래가 되도록

청년이 머물고, 꿈꾸고, 성장하는
전남광주통합특례시를 만들어갑니다

Dream 아이디어를 현실로
전남청년창업지원센터

Grow 시작했다면, 더 크게
청년 창업 성장 육성 프로젝트

Start 시작에 힘을 더하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Leap 더 큰 도약을 위한
전문한 힘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